

개소 60주년,
새 장을 여는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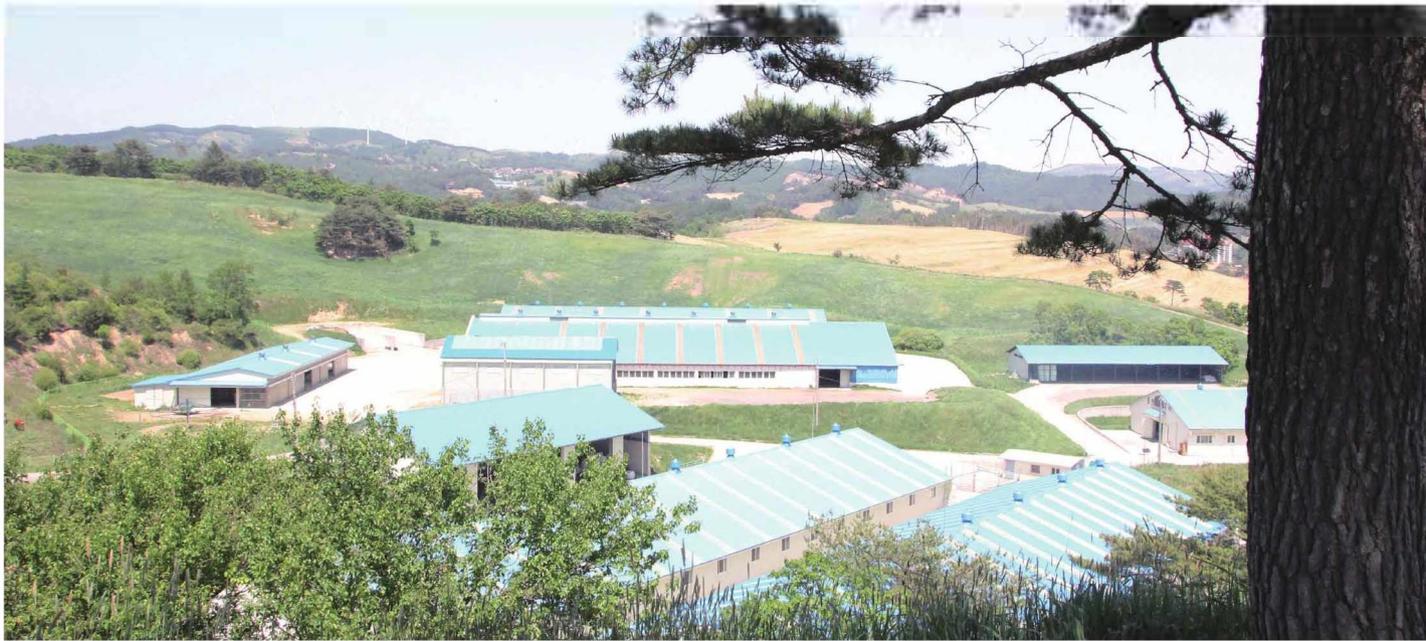
권 응 기

글 고객홍보팀

평창올림픽을 준비한다고 차선을 막아 곳곳에 서행이 늦어지던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한참. 숨이 쉰 뒤를 났을 때쯤 멀리 이국적인 풍경과 너른 초지가 눈에 들어온다. 아, 속단은 마시길. 뽕차 쪽은 다른 곳이니. 오늘의 목적지는 그 앞에 너른 초지. 그 속에 오롯이 자리 잡은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다. 이번 첫 누리인터뷰의 주인공, 한우연구소의 소장 권응기 소장을 만나기 위함이다.

드넓은 초지를 안고 빌장처럼 자리 잡은 건물. 국내에서 보기 드문 초지 위주로 구성된 언덕들이 찾는 이의 눈을 시원하게 씻어준다. 건조 준비를 위한 제조 작업을 하느라 진한 물냄새가 그득한 곳. 그는 이곳 사택에서 지내며 한우연구에 집중하고 있었다.





초지에 싸인 한우연구소 우사

“전에 7~8년 정도 근무했던 곳에 소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그리고 소장으로서 한우연구소 60주년을 맞게 됐다. 요즘처럼 한우시장이 들쭉이고 있는 상황에 소장으로서 있으니 고민도 더 많고, 그 속에서 맞는 60주년이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한우연구소는 1956년 7월 개원한 송양축산기술원 대관령지원에 뿌리를 둔다. 그리고 1994년 12월 당시 농촌진흥청 고령지시험장 축산과와 국립축산연구원 대관령지원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로 통합되며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됐다. 오는 7월 한우연구소는 개소 60주년을 맞는다.

한우연구소는 유일한 한우 국가연구기관이다.

한우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농가 현장에서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소도체 등급 기준 개선과 같은 현안사안에 대한 연구를 한다.

예전부터 거래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의 공통점을 찾다보면 연구의 초점이 FTA 대응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FTA 대응을 위한 생산비 절감이다.

“한우 사육은 대부분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 육질의 고급육을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생산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가 한우연구소의 가장 큰 숙제다. 사료 문제도 그중 하나다. 현재는 배합사료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관세 제로화를 대비하자면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가 인터뷰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나는 기자다'라고 생각하려 노력하지만, 이럴 때 보면 어쩔 수 없다. 등급기준 개정 요구의 한 축에 안 그래도 사료 먹어 키운 소가 지방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지라 본능적으로 귀가 쏠긋 선다. 게다가 그는 광활한 초지를 두고 한우를 방목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우연구소장 아닌가. 심지어 이날 인터뷰는 앞서 잡았던 약속이 한우 방목일과 겹쳐 재조정해 만난 자리이기도 했다.

“방목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접근할 것일 뿐이다. 방목이 일반 사육의 대안은 될 수 없다. 애초에 우리나라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우리만 해도 구역을 나눠 방목하는데, 한 구역 먹는데 1주일 정도 걸리고 먹고 나간 구역에 돌아오자면 2달은 적어도 필요하다. 보통 5개월 정도 방목하는데, 그 넓은 초지를 어떻게 털 것인가. 게다가 방목은 소의 운동량이 많으니 질기기도 하다.”

대신 그는 현재 조사료 다급형 사육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이며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살짝 공개했다. 그리고 비육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요즘 저지방육에 대한 목소리가 클 뿐이지 고급육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다. 없어서 못 판다. 목소리 작은 고급육 수요도 함께 안고 가자면 중요한 것은 비육 단계와 영양 수준 조절이다.

개인적으로는 육질형과 성장형을 구분해 사육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살코기를 주로 할 것인지 육질에 치중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이다.”

그가 제안한 것은 어린 시절(6~12개월 사이)에 유전력을 보고 판단해 맞는 쪽으로 사육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것. 송자에 따라 복적성 있게 비육하면 오히려 생산비를 절감하며 현명하게 사육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렇게 해서 생산자는 소 가격을 제대로 받고, 소비자는 고기가 격을 합리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 한우 농가가 규모와 상관없이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력을 키워 세계시장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한우연구소는 지난 3월 한우미래전략 협의체도 발족했다. 전문가들을 마련해 함께 한우산업을 종합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 답이 하나는 없다. 앞으로 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우리 한우산업이 선택하고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한우연구소에서 방목하고 있는 한우

